

스토킹·과다노출 단속 "헛갈려"

(바바리맨·여성 신체)

개정 경범죄처벌법 단속기준 애매

경찰, 명확한 지침없어 현장 적용 혼선

지난 22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이 현장 경찰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피담이 급속도로 퍼날라지는 등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단속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다.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기존에는 '과다 노출'의 경우 배꼽터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람의 성기나 여성 가슴 전체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니스커트와 탱크탑 단속이 시작된다', '유신 시대로 가고 있다'는 등 트위터로 퍼졌던 피담과는 사뭇 다르다.

현장에서는 자칫 권한 단속으로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경찰청의 세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 하면, 새 규정 적용에 예를 먹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반면, "단속 기준을 봐도 적용하기 애매모호하다. 헛갈린다"는 경찰도 적지 않다. "그러면 엉덩이만 노출하면 단속 대상인가" 등 경계가 애매한 기준에 대해서는 신뜻 단속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과 관련, 과다 노출, 업무방해, 구걸행위, 지속적 괴롭힘, 관공서 주취 소란 등의 처벌 기준을 마련해 내려보냈으나,

"관공서 주취 소란"도 비슷하다. 기존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훈방 조치했던 사항이지만 최고 6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범칙금	해당 경범죄
16만원	거짓광고, 업무방해, 임포매매, 출판물 부당개제
8만원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장난전화, 자칫해 질수, 거짓 인식사항 사용, 위험한 불씨 사용, 거짓신고, 물품강매, 타인간 판 이동·훼손
5만원	과다노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음주 소란, 지문채취 불응, 단체 가입 강요 구걸 행위, 괴롭힘 방해
3만원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인신 소란 행위

(자료:경찰청)

있도록 바뀌었다. 세부적으로는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차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은 '합리적인 사회 평균인이 수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말소리 크기 이상으로 소리를 크게 쓰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목포경찰은 지난 24일 밤 10시께 목포시 용당동 연동파출소 내에서 육

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모(54)씨에 대해 애초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적용, 경범죄로 처벌하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바뀌 적용하기도 했다.

'지속적 괴롭힘'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전화·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1~2회는 처벌 곤란하고 명시거 거절 의사에도 3회 이상에 걸쳐 요구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면서 경찰청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단속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3·4월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하고,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자·여성 추적

국과수 "동영상 인물 김학의 가능성 배제 못해"

경찰이 건설업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여성사업자 A(52)씨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추적하는 등 영상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현(54)씨와 A씨의 주변인물이 다른 형태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보관 중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성 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누구인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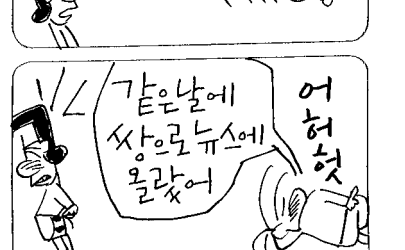
경찰은 동영상을 제출한 A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동영상 원본을 찾아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윤씨를 조만간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제출한 동영상의 이미지와 성문 분석을 통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지난 25일 내었다. 이는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남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여서 현재 확보한 동영상은 수사상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동영상의 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어 억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윤씨를 조사하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만큼 하루빨리 조사해 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층 C씨와 그의 측근인 D씨가 성 접대 동영상을 가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성 접대 관련 동영상으로 유력 인사들을 위협, 사업상 특혜나 이권을 취했을 경우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돈 앞에는... 염치 팽개친 의사

광주경찰, 의료보험 사기 의사·나이롱 환자 등 86명 입건

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의료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인 의사까지 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26일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 혐의(사기)로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병원 의사 A(50)씨와 원무과장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료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 84명도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광주 북구 모 병원에 입원환자를 끌어들이는 수역, 진통제 투약 등 진료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까 환자들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100만~1300만원씩 모두 4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의 친척을 통해 보험금

을 타내는 요령을 전해 듣고 친구 등 10여명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대구에서 남자입원을 만나러 광주에 오도록 유도해 입원환자를 끌어들여 진료, 진통제 투약 등 진료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모두 33건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의사 4명 등 1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급된 피해금액만 66억59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또 허위 진료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 84명도 입건



마스크는 이렇게...

봄을 맞아 광주시 북구 공무원들이 26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황사대비 캠페인'을 열고, 어린이와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변호사 찌른 40대 징역 5년

광주지법 선고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집단 흉기 등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도 합의가 안 된 점을 참

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무고 사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서모(51)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정모(48)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 변호사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말을 피우고 사건 수임료를 돌려받고도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면직 권고 현직검사 '향응·성매매' 고소 당해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소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면직 권고나 내려진 현직검사가 재소자에 대해 고소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59)씨는 광주지검 소속 강모(37) 검사를 뇌물수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김씨는 고소·고발장에서 "강 검사는 2010년 한국마사회 순천장의발매소 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유충주점에서 향응을 받았고 유충주점에서 성매매를 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간 약 1만명 기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기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진리관

제출서류: 입학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은 kcfce@hanmail.net 접수 문의: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교육비: 25만원 / (사전 접수: 3월 30일까지 입금 한하여 22만원)

입금계좌: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검정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특 전: 토레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될 토레정서코칭지도사 과정 : 정서코칭필수 + 교육2회, 임상 후 자격이수 정서코칭 + 아동가족심리상담사 두 강좌 접수시 혜택: 교육비 40만원

주관: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kwangshin.ac.kr

후원: fcbci 광주동방방송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항목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 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